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6권 제3호(2020): 165-176

접수일(2020년 9월 8일), 수정일(2020년 9월 20일), 게재확정일(2020년 9월 22일)

DOI: <http://dx.doi.org/10.25277/KCPR.2020.16.3.165>

데이트폭력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조 상 현

(동서대학교 사회안전학부 교수)

데이트폭력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조 상 현*

요 약

최근 언론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흉악하고 잔인한 충격적인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대중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우리 사회의 민감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데이트폭력은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발생하며 이를 사랑이라는 이유로 방치를 함으로써 더욱더 잔혹한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은 2017년에 1만 4136건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에는 1만 8671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및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데이트폭력의 발생요인을 세분화하여 수행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발생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으며, 국내외 데이트폭력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독립변수는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 이성관계의 집착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데이트폭력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부산 소재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한달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26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응답 누락, 불성실한 답변 등 13부를 제외하고 총 51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정서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과 부모학대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과 부모학대, 학교폭력 피해,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폭력의 발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데이트폭력,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피해, 이성관계 집착

A study on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Cho, Sang Hyun*

ABSTRACT

Recently, as the media reported vicious and cruel shocking cases of dating violence, it was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by the public and emerged as a sensitive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At first, dating violence occurs as a trivial problem, and by neglecting it for love, it evolves into a more cruel form. According to data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 이 논문은 2019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Fronti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교수 / 동서대학교 사회안전학부

* Professor / Division of Social Security at Dongseo Universit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Dongseo University, "Dongseo Frontier Project" Research Fund of 2019

14136 cases of dating violence occurred in 2017, and 18,671 cases occurred in 2018,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and social problems, studies on dating violence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but studies conducted by subdividing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are inadequat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verify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were conducted in parallel, an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t home and abroad,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ed of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damage and persecution of school violenc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The dependent variable was classified into emotion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of dating violenc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surveyed for one month in June 2020 targeting students of a four-year university in Busan.

A total of 526 copies were collected, and a total of 513 copies of the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13 copies such as omissions and unscrupulous answ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emotional violence wer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school violence, and obsession with heterosexual relationships. Factors influencing physical violence wer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school violenc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Finally, the factors affecting sexual violence wer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olicy suggestions to increase the occurrence of dating violence were presented.

Key words : Dating violenc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Harassment, School violence victims, Obsession with heterosexual relationships

1. 서 론

인간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결혼은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1]. 이러한 결혼에 있어서 이성과의 만남은 중요하다. 인간은 이성과의 만남 즉, 교제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등 자신과 타인이 하나가 되는 귀한 경험으로 자아성장 및 자기 가치감을 한 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2]. 하지만 이성교제는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사고, 가치관, 행동 등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3]. 데이트폭력은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발생하며 이를 사랑이라는 이유로 방치를 하게 되면 더욱더 잔혹한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연인관계의 지속을 위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데이트폭력

은 연인사이의 관계로 인해 친구관계, 일상생활, 취미 등 서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4].

데이트폭력은 최근 언론을 통해 흉악하며 잔인한 충격적인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데이트폭력의 문제점이 대중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우리사회의 민감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삶을 파괴시키는 범죄이다[5].

Stappenbeck & Formme(2010)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의 발생율은 5 ~ 66%로 조사되었으며, White & Smith(2009)에 의하면 3커플 중 1커플에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Harned(2002)와 서경현(2008)의 연구에서는 약 20 ~ 50%가 데이트폭력에서 신체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Harned(2002)와 사공은희(2007)의 연구에서는 약 70 ~ 80% 정도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urnphrey-Gordon & Gros(2007)에 의하면 약 35 ~ 50%가 데이트폭력에서 성폭

력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발생 율에 대한 차이는 연구자들에 의한 데이트폭력의 정의 및 측정도구, 대상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6].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은 2017년에 1만 4136건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에는 1만 8671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남성도 있겠으나, 대부분 여성으로 데이트폭력 발생 후 관련기관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7]. 이는 데이트폭력을 부인하거나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피해자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피해자 자신이 사랑과 노력으로 상대방 연인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상대방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8].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폭력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 및 자살 등 그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및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데이트폭력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대다수 연구는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그 개념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데이트폭력 발생에 있어서 그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네트 즉, 상황을 제시하여 데이트폭력의 발생요인을 찾고자 한다. 비네트를 이용한 연구는 자기보고식 조사에서 응답의 신뢰도 저하 및 편견개입 등 단점을 최소화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네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데이트폭력의 발생 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발생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데이트폭력의 치안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2.1 데이트폭력의 개념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은 Makepeace(1981)의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었으면, Puig(1984), Marshall & Rose(1988)등 연구 초기에는 구혼기 학대(courtship abuse)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후에는 결혼 전 학대(pre

marital abuse), 데이트 공격(dating aggression), 이성교제 폭력, 연애 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Straus(2004)는 데이트폭력을 미혼의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이에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포함한다고 제시하였다. 홍영호 외(2015)는 데이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행하는 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한성훈(2017)은 데이트폭력이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서 성적 폭력 나아가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회변화에 따라 데이트폭력의 행위자와 유형을 포섭할 수 있는 ‘미혼·기혼과 상관없이 남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스토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에서는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연인 간 폭력’ 또는 ‘데이트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다양한 정의는 데이트폭력을 법적 개념이 아닌 사회적 개념으로 바라보기에 아직 명확한 개념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

2.2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데이트폭력의 발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외의 수많은 데이트폭력의 발생요인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는 요인으로는 ‘부부 간의 폭력’이나 ‘부모 학대’와 같은 가정폭력과 같은 요인이다. 가정 내에서 부부 간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학대를 함에 있어서 자녀들은 폭력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인습 등을 제공하게 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이를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성장기 동안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이들에게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폭력을 쉽게 행사하거나, 폭력을 수용 및 체념하는 방식 등으로 나타난다[10]. Foo & Margolin(199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은 이성교제폭력 즉,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Smith 외(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자녀학

대의 피해가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의 김예정 & 김득성(1999), 정혜정(2003), 서경현 외(2007) 등의 연구에서도 가정폭력이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 역시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진학을 하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된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고민, 진로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 보다는 친구와 이를 논의한다. 그만큼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의 주를 이루는 학교와 친구 등과 같은 학교는 사회화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폭력의 피해와 사용방법 등을 익힘으로써 더욱 쉽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11]. Riggs 외(199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창시절의 신체적 폭력 즉, 학교폭력은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관계에 대한 집착 역시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사례에서 보게되면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데이트폭력의 특징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12]. 관계에 집착하는 성향은 상대방에 대한 순수함에 발생하여도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동함으로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Follingstad, Bradley, Helff & Laughlin(2002)의 연구에서도 이성관계의 집착이 데이트폭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의 서경현(2014), 권용선 & 유미진(2019)의 연구에서도 이성관계의 집착이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소재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한달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26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응답 누락, 불성실한 답변 등 13부를 제외하고 총 51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

(단위: 명, %)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80	54.6
	여자	233	45.4
학년	2학년	205	39.9
	3학년	185	35.9
	4학년	123	24.2
현재 교제 여부	있음	277	53.9
	없음	236	46.1
교제 경험	있음	329	64.2
	없음	184	35.8
성교경험	있음	264	51.4
	없음	249	48.6

3.2 측정도구

데이트폭력은 사랑하는 연인간에 발생함으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비네트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비네트는 Stewart et. al.,(2012)와 Tim & Yeater(2011) 그리고 하예지(2014)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비네트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전혀 있을 수 없다’를 1점에서 ‘매우 있을 수 있다’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의 Cronbach's 는 각각 .63, .68, .81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의 발생 요인으로서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성관계의 집착 등으로 구성하였다.

가정폭력 경험은 이화숙(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화숙(2016)은 Straus(1998)의 척도를 최지현(2005)과 김소영(2010)이 수정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부모폭력 목격과 부모의 학대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전혀 없음(0점), 2~3년에 1~2회(1점), 일년에 1~2회(2점), 한달에 1~2회(3점), 주 1회 이상(4점)으로 구성하였다. 이화숙(2016)에서는

가정폭력 목적의 Cronbach's 는 .82, 부모 학대의 Cronbach's 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정폭력 목적과 부모 학대의 Cronbach's 는 각각 .89, .76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Olweus(1993)과 Olweus(1991)를 안정만(2001)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끔 재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폭행, 금품갈취, 괴롭힘, 집단 따돌림, 위협 및 협박, 욕설 및 폭언 등 총 6문항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의 Cronbach's 는 .66, 학교폭력 피해의 Cronbach's 는 .75로 나타났다.

이성관계의 집착은 우아미(2008)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성관계에 따른 외로움이나 불안전감, 거부, 질투, 의심, 과민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성관계의 집착 Cronbach's 는 .79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기술 통계결과

<Table 2>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기술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의 평균은 각각 2.01, 2.11, 1.95로,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중앙값보다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적 폭력보다는 정서적 폭력 그리고 신체적 폭력이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에 있어서 부모 폭력의 목적은 1.21, 부모학대는 2.55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목격하기 보다는 부모로부터 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있어서 피해는 1.73, 가해는 1.64로 학교폭력은 중앙값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성관계 집착은 2.65로 중앙값보다 높은 것으로 이성친구에 있어서 집착은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서적 폭력	2.01	.74	1	4
신체적 폭력	2.11	.68	1	4
성적 폭력	1.95	.71	1	4
부모폭력 목적	1.21	.88	1	4
부모학대	2.55	.73	1	4
학교폭력 피해	1.73	.72	1	5
학교폭력 가해	1.64	.79	1	5
이성관계 집착	2.65	.64	1	5

4.2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3>은 데이트 폭력과 부모폭력 목적, 부모학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이성관계의 집착에 대한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서적 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부모폭력 목적($r=.598$), 부모학대($r=.486$), 학교폭력 피해($r=.443$), 학교폭력 가해($r=.327$), 이성관계 집착($r=.191$)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부모폭력 목적($r=.324$), 부모학대($r=.264$), 학교폭력 피해($r=.268$), 이성관계 집착($r=.213$), 학교폭력 가해($r=.16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적 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부모폭력 목적($r=.516$), 이성관계 집착($r=.264$), 부모학대($r=.217$), 학교폭력 가해($r=.167$), 학교폭력 피해($r=.0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할수록 데이트폭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에는 부모의 학대가 높을수록, 성적폭력에는 이성관계의 집착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1	1							
2	.156 *	1						
3	.148	.046	1					
4	.059	.194 *	.092 *	1				
5	.077 **	.031 *	.153 *	.113 **	1			
6	.598 **	.486 *	.443 *	.327 *	.191 *	1		
7	.324 **	.264 **	.268 *	.165 *	.213 *	.149 *	1	
8	.516 **	.217 **	.059 *	.168 *	.264 *	.238 **	.061 **	1

※ 1=부모폭력 목격, 2=부모 학대, 3=학교폭력 피해,
4=학교폭력 가해, 5=이성관계 집착, 6=정서적 폭력,
7=신체적 폭력, 8=성적 폭력

***p<.001, **p<.01, *p<.05

4.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발생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데이트폭력 발생요인으로는 국내·외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부모폭력의 목격, 부모학대 등 가정요인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의 학교요인 그리고 이성관계의 집착으로 구성하였으며, 데이트폭력은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Model 1은 정서적 폭력, Model 2는 신체적 폭력, Model 3은 성적 폭력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1의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12.261의 수치로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313$ 으로 31.3%의 설명력으로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468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의 정서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296), 부모학대(=.135), 학교폭력 피해(=.166), 이성관계 집착(=.08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의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11.614의 수치로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228$ 으로 22.8%의 설명력으로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396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의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311), 부모학대(=.189), 이성관계 집착(=.123), 학교폭력 피해(=.01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의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11.521의 수치로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364$ 으로 36.4%의 설명력으로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512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의 성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성관계 집착(=.234), 부모폭력 목격(=.156), 부모학대(=.14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Model 1 (정서적 폭력)	Model 2 (신체적 폭력)	Model 3 (성적 폭력)
부모폭력 목격	.296***	.311***	.156*
부모학대	.135***	.189***	.147*
학교폭력 피해	.166**	.017*	.088
학교폭력 가해	.261	.155	.160
이성관계 집착	.089**	.123*	.234***
R ²	.313	.228	.364
F값	12.261***	11.614***	11.521***
Durbin-Watson	1.468	1.396	1.512

***p<.001, **p<.01, *p<.05

5. 결 론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발생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부산 소재 4년제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데이트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으며, 국내외 데이트폭력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독립변수는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 이성관계의 집착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는 데이트폭력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정서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과 부모학대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과 부모학대, 학교폭력 피해,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발생에 있어서 주요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정서적 폭력은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학교폭력 피해, 이성관계 집착 순으로 제시되었다. 신체적 폭력의 발생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이성관계 집착, 학교폭력의 피해 순으로 제시되었다. 성적 폭력의 발생요인으로는 이성관계의 집착,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순으로 제시되었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정서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적 폭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는 데이트폭력의 모든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발생에 있어서 크기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중요시 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 및 부모학대 그리고 이성관계의 집착 등이다. 부모폭력 목격 및 부모학대 등 가정요인은 데이트폭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로 제시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정이 대가족제도로써 부모의 역할 보다는 조부모 및 형제, 자매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을 하였다. 부모의 역할이 미비하더라도 조부모 등이 부모를 대신하여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대다수의 가정이 핵가족제도로써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은 안식처이며, 건전한 자아상을 형성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학습하고, 사회의 관습과 규범 등을 습득하게 된다. 자녀들은 이러한 가정에서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부모에게서 학습을 하며 형성해 나아간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 모습을 습득하게 된다. 부부간에 갈등으로 인해 잦은 언쟁 및 폭력의 행사는 자녀들의 성장과정 속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역시 언쟁 및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들의 그릇된 행동에 있어서 체벌을 하는 것은 폭력 및 공격적인 행동의 본보기가 된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Kaufman & Zigler(198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의 폭력을 경험한 30%는 추후에 자신의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며, 가정 내의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2% 정도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Simons 외(1998)의 연구에서는 가정 내의 폭력을 경험한 남성은 이성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과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폭력은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며 이는 폭력의 순환으로서 근절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에서의 역할은 이성관계의 집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바라본다. 가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겪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을 하기 보다는 성장을 하면서 친구나 이성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진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친구나 이성에게 이를 치료받으며 해결하고자 한다. 즉 가정은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뜻을 함께하는 이성과 가정을 꾸리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게 된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뜻하지 않게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를 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화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온정과 부모가 자녀에게 규범을 전달하는 지배의 양육방식 그리고 일관된 훈육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녀의 양육방식과 훈육방식은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부모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안전감이나 자기확신 나아가 사회의 규범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는 부산 소재의 대학생을 한정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데이터 수집에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데이트폭력의 발생요인으로 제시된 가정요인, 학교폭력 요인 그리고 이성관계의 집착 등 발생 요인간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좀 더 정교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B. R. Lee. & J. O. Kim.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of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2), 155-175, 2012.
- [2] H. J. Kang. & K. H. Park. The Variables Related to Risk Factor For Victims and to Maintenance of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9(3), 27-54, 2013.
- [3] E. B. An. & S. J. Lim. Intimate Partner Violence Coping Style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Clarity.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15(4), 55-68, 2019.
- [4] H. K. Gu & H. J. Park. A Study on the Legal Systemization of Date Violent Crim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2), 2221-2234, 2020.
- [5] K. S. Kim. A Study on Legislative Countermeasures against Dating Abuse.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9(3), 131-173, 2017.
- [6] H. N. Park & S. M. Ja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iolence Witness and Dating Sexual Violence Moderating Effect of Female Victim's Drinking Behavior. *Mental Health & Social Work*, 40(1), 149-176, 2012.
- [7] S. R. Shin. A Case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ating Violence Victims in Colleges.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14(2), 47-62, 2018.
- [8] S. Y. Lee. Risk Factors of Sustaining Violent Romantic Relationship among Dating Violence Victims : Focusing on Television, Individual, and Gender Factors. *Journal of Social Science*, 28(3), 33-55, 2017.
- [9] T. K. Hong.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Causes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15(2), 491-520, 2018.
- [10] T. K. Hong. A Study on Recognition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 Fa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8(2), 113-16, 2019.
- [11] H. S. Lee.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Silla University, 2016.
- [12] Y. S. Kwon & M. J. You.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ttachment, Obsessive Behavior,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0), 343-355, 2019.
- [13] J. H. Ju. & K. H. Suh. Rela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Clingingness in Dating Relationships to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5), 209-229, 2015.

[저자 소개]

조 상 현(Cho, Sang Hyun)

2017년 8월 범죄학 박사

Email: whtkdgus37@hanmai.net

연구분야

Discourse on the contextuality of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17(3), 2020.

Discuss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etective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9(3), 2020.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80, 2020.

주요경력

2018-현재 한국공안행정학회 연구국장

2019-현재 한국치안행정학회 사무국장

2019-현재 한국민간경비학회 기획위원